

2) 상 복

상복은 보통 삼베로 만들었으며 제복으로 입기도 했다. 특이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바깥 사람이라 하여 바깥쪽으로 단을 내었고,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안쪽으로 단을 접어 넣었다. 상복 중 아들이 쓰는 건은 상주에게는 가운데 검은 줄이 있었고, 곡을 할 때 짙는 지팡이는 어머니·아버지 모두 대나무를 사용하였다.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 상복을 불에 태우는 경우도 있었으나, 태우지 않고 훌이불이나 베갯잇 등을 만들어 쓰기도 했다.

상가의례 중 3년상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면 3년 내내 옷밥을 해서 사당에 가져다놓고 다시 가져오는 번거로움이 있었고, 상주는 죄인이라 하여 3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했다. 그러나 이 3년상은 부유층에서나 있는 일이며 보통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다.